저는 경제적 취약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의 소도시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이 때 처음으로 사회 구조적 격차에 기인한 교육 불평등의 악순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환경이 열악한 친구들은 어른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교육경쟁에서 쉽게 밀려났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치며 탈선의 길로 빠지거나 자신의 꿈을 좇기보다 생업 현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모든 인간의 교육권이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성과가 온전히 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정의와 평등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해답은 법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법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 후 사회복지센터와 중학교에서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맡았습니다. 예상대로 지원은 부족하였고, 아이들에 대한 관리도 매우 허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인식한 현실의 상황과 공부하고 있는 법률 사이의 간극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형법각론 강의에서 존속살해죄에 관한 판례를 공부하던 중 해당 사례의 소년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인 어머니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 250조 제 2항은 형식적 신분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소년이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는 동안 국가와 사회는 방치했고,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소년범이 국가와 법에 대해 느낄 원망과 분노는 또 다른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소년범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판결로서 현실과 법 사이의 간극을 채워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가정법원 판사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뚜렷한 목표의식 하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대비하였습니다. 변호사 시험 기본 7가지 과목인 민사법, 공법, 형사법을 모두 수강하였고, 총 82학점(28과목)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그 중 특히, 민사법을 포함하여 21과목은 A+, 5과목은 A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회 성적장학금을 받았으며, 평점 4.33 (환산 98.11)의 우수한 성적과 높은 석차로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저 나름의 공부 원칙을 세워 공부 했습니다.

첫 째, 무조건 시험 전까지 강의 듣는 것을 제외하고 교과서를 4회독 하였습니다.

처음 1회독 과정에서는 이해에 집중했습니다. 이해가 막히면, 도서관에 있는 모든 관련 교과서를 찾아 해당 부분을 여러 교수님의 설명으로 읽어 나갔습니다. 대부분은 이 과정을 통해 이해가 되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태그를 붙여놓고, 일단 진도를 끝까지 나간 후에 다시 돌아와 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2회독 과정에서는 객관식 문제집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과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중요도를 구분해가며 공부했습니다. 3회독 과정에서는 주요 판례의 쟁점이 담긴 사례형 문제의 목차를 세우고 답안을 완성해보는 연습을 하며, 암기를 해나갔습니다. 마지막 4회독 과정에서는 머릿속 내용 모두를 답안지에 담아낼 수 있도록 백지에 목차만 보고 답안을 쓰거나 말로 복기하는 훈련을 반복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둘 째, 충분한 공부 시간 확보를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학부 중에는 참가해야 할 행사와 대외활동이 많기 때문에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매 시험 3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준비에 돌입했고, 이 기간에는 강의 외 순수 공부시간을 주 70시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휴일 없이 하루에 약 10시간 정도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날 할당된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다음날 전날 못한 시간만큼 더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통제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지쳤다고 느껴질 때는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네시간 공부할 양을 세시간 안에 몰아쳐서 끝내고, 절약한 한 시간은 마음 편히 푹 잠을 자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셋 째,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석대로 공부했습니다.

판례의 요지만을 암기하는 방식을 경계하였습니다. 입학 초에는 판례의 결과를 암기하는 것에 많은 공부 시간을 할애 했었습니다. 그 결과 판례를 변형한 사례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겁부터 났고, 제 답안에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판례 속의 법적 쟁점을 찾고, 법률에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기까지의 논리적 흐름에 보다 집중된 학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점 받기는 더 힘들지만 종국적으로 변호사 시험 대비에 주요한 사례형 연습을 더 많이 하기 위해 판례연습(특강)강의를 추가적으로 더 수강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법학회를 통해 판례 스터디를 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시간과 노력은 더 많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2학년 계약법 사례형 시험에서 모범 답안으로 선정되는 성과 또한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넷 째, 더 효율적인 공부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 초기부터 손으로 답안을 적어가며 사례형을 훈련하는 방법만을 고수했었습니다. 마치 손이 답안을 기억해 쓰는 것처럼 더욱 거침없이 빠른 시간 내에 답안을 완성할 수 있었고, 결과 또한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 된다는 점과 체력적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간을 나누어 초반에는 기존의 쓰는 방식대로 하고, 시험이 가까워질 수록 손으로 쓰는 비율을 줄이고 말로 답안을 복기하는 방식의 비율을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대외활동

저는 사회복지센터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 및 상담을 하며 경청과 공감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봉사를 시작한지 한달 쯤 됐을 때,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타는 것에 대해 지적 받은 아이가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 거침없이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본 후로 회의감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순한 양과 같은 모습만 보여주던 아이의 숨겨진 민낯을 본 기분이 들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 선생님께 오랜 기간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그 때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물론 있지만, 그들의 굴곡진 삶에 대해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항상 새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가진 아픔과 분노에 공감하려 노력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때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가치관을 본받아 법조인이 된 후 만나게 될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경청과 공감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아동 인권을 포함하여 선진국의 인권의식과 그에 따른 환경은 어떻게 다른지 경험하기 위해 세계 제1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으로 교환학교를 신청하여 1학기를 보냈습니다. 이 때의 경험은 진정한 평등과 인권의 의미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생활하며 가장 놀라웠던 점은 각각의 복지 정책의 기저에 깔린 평등에 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화장실 설치방식에서 느꼈습니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 복지를 위해 장애인용 화장실을 따로 구분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이를 구분 짓지 않고,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충분히 이용가능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장애인을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인간으로 규정하여 비장애인과 구분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불편하지 않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한 공동체 안에서 소외 받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치관의 차이는 우리 마음 속에 은연 중에 자리 잡힌 권위의식을 내려놓게 하고 복지가 수혜적 배려가 아니므로 사회적 약자들 또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때 배운 진정한 인간 평등의 가치관을 스스로 지켜가며 법조인이 된 후에도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한 평등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저는 소송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재판의 현장은 어떠한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찾아가 개정중인 재판장에서 재판 방청을 했습니다. 그 때 이혼소송이 진행 중 이었습니다. 해당 소송의 남편은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고, 아내가 아이에 대한 접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 대한 감정적 분노가 일어남을 느꼈습니다. 저는 가정폭력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들은 후부터 객관적인 시각을 잃은 채 재판을 지켜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제가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 반성하였고, 판사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조금이나마 경험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저는 판사의 판결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냉철하게 자기 성찰을 하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노력하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